

<http://doi.org/10.52530/kpac.2026.58.4>

學山 李續雨의 생애와 시 세계*

노연송**

차례

1. 서론
2. 학산의 생애와 문인 교유
3. 『학산유고』에 수록된 한시 고찰
4. 결론

| 국문초록 |

본고는 일제강점기 문인이자 유학자였던 학산(學山) 이적우(李續雨)의 생애와 그가 남긴 한시를 통해 그의 문학적 행보를 알아보고자 했다. 학산은 유학자로서 전통을 고수하고 우리 것을 지켜나가고자 한 문인으로, 이는 당시 향촌에 은거하던 지식인들이 보여준 전형적인 대응 방식에 가깝다. 실제로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학문에 전념하는 한편, 당대 문학 활동을 활발히 했던 문인들과 교류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학산은 학문적으로 일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지만, 시대적 특성을 작품 속에 반영하며 문학 활동을 이어가던 문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 때 이루어졌던 문학 활동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투쟁의 측면뿐 아니라 전통을 유지하며 학문적 연대를 형성했던 향촌 지식인들의 삶에 대한 고찰 또한 필요하다. 문학에 집중하는 행위는 한국의 학문 체계를 유지하고 전통문학을 계승하는 데 초점을 둔 실천이었으며, 이는 학산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산 이적우는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 학문적 전통을 계승했던 중요한 학자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학산 이적우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

* 이 논문은 2025년 6월 27일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주관 ‘제12차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국립순천대학교 강사

고 그의 학문적 여정을 추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학산유고(學山遺稿)』에 수록된 작품과 행장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학산의 학문적 지향과 문인들과의 학술적 연대 과정을 살펴보았다. 학산 이적우는 하겸진, 조공섭, 김항 등 당대 주류 문인들과 긴밀한 교유를 이어갔는데, 이는 그가 고립된 은거자(隱居者)라기보다 전통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유학자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다만, 학산의 문집에는 작품의 창작 연도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아 연대순으로 재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주제별 분류를 주된 분석 방식으로 삼되, 각 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산의 생애와 당대 교유 인물들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향은 학산의 한시에 나타난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그가 느꼈던 세속에 대한 유혹, 그에 대한 경계심, 도학의 실천 의지, 이를 통한 정통 유학자로서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지점들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산의 생애를 통해 일제강점기 은거했던 유학자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한문학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식민지 시기 지식인의 고뇌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 학산(學山), 이적우(李績雨), 학산유고(學山遺稿), 일제강점기, 한시

1. 서론

일제강점기 유학자이자 문인인 학산(學山) 이적우(李績雨, 1876~1940)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질을 갖췄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는 학산이 당시 유명했던 조공섭(曹琬燮)과 하겸진(河謙鎭) 등 여러 문인과 긴밀한 사이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평생을 산속에 거처하였고, 이에 따라 그가 남겨놓은 작품 역시 많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학산은 일생에 걸쳐 학문에 정진해 왔고, 같은 지역의 학자들에게 문학적 소양(素養)을 인정받았다. 학산과 가깝게 지냈던 하겸진 또한 학산의 재능이 특출난데도 사람들이 그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그가 평생을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국가 정세가 불안정했던 시대를 살았던 학산은 한국 고

유의 전통문학을 지키려는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왔다. 물론, 학산 역시 일본에 의해 한국이 근대화되고, 주위 환경이 빠르게 변하자,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심경 변화는 작품 세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젊은 학도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과 시대의 변화를 논하는 내용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학산은 일제강점기에 유학자이자 문인으로 활동했던 이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 시기 문학 활동을 했던 문인들의 문집과 그 속에 수록된 작품을 보면 우국(憂國)과 애국을 소재로 하거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유학자로서 오로지 학문에만 집중했던 이들은, 항일운동과 문학 활동을 병행했던 문인들에 비해 전통문학 계승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산 역시, 그의 문집 『학산유고』에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산의 생애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 유학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산의 작품 중에서도 한시를 중심으로 진행한 본 연구는 한국의 한시사(漢詩史)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시사에 반영되지 않았던 주요 인물인 학산의 작품은 미발굴되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과 생애가 연구되는 것은 그를 비롯하여 그가 교류했던 이들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학산이 남긴 저작의 분량이 충분하지 않아 그의 학문적 역량을 밝히기 위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자료의 부재는 학산이 그동안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한시사 연구에서 누락되었던 인물의 문학 작품을 발굴하는 과정이 학계의 발견과 연구 확장에 기여하는 작업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학산의 저작에 대한 탐색과 분석을 시도하고 그 함의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학산의 생애와 그의 교유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학산유고』에 수록된 한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상술했듯, 학산에 대한 정보는 그의 문집이 유일했고, 이를 제외하고 학산에

대한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부재(不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산을 연구하기 위해 이 글은 그의 문집과 함께 그와 교류했던 조공섭의 문집 『암서집(巖棲集)』, 허훈(許薰)의 『방산선생문집(舫山先生文集)』 등을 참고하였다. 학산의 생애와 교유 부분은 『학산유고』의 행장과 서문, 발문, 묘갈명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의 문집에는 연보(年譜)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작품의 창작 연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학산이 활동했던 정확한 시기를 연도별로 정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작품의 내용과 배열 순서에 따라 학산의 생애를 정리하였다.¹⁾

학산의 문집 『학산유고』를 비롯하여 당시 그와 교류했던 문인들의 문집에서 그의 문학적 성과와 전반적인 인생 여정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학산유고』에 수록된 서신과 한시를 통해 학산 가문의 내력과 가계 배경 또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산이 경남 의령 지역 일대에서 명성 높았던 문산 이흥석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학산은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을 조공섭, 하겸진 등 저명한 문인의 문하에 들어가 학업을 이어가도록 하였는데, 이는 그의 가문 내력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다. 학산의 일부 작품 속에는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산의 가계(家系)와 관련된 분석은 경남 의령 지역의 문인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조명받지 못한 경남지역 문인들과 그 선조들의 행적을 탐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 『학산유고』를 편찬한 학산의 장남 이병호(李秉灝)는 학산의 인생을 순서에 따라 연도별로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아버지가 남긴 작품을 수집하여 보존하는 데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학산의 교유 상황을 보면 작품의 수가 현재 남아있는 것보다 더욱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신이 학문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여겼던 만큼 모든 글을 남겨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학산의 생애와 문인 교류

1) 학산의 생애와 행적

이적우(李續雨)는 자가 우여(禹汝), 호가 학산(學山)으로, 초명(初名)은 항우(恒雨),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학산의 고조부는 이원철(李源哲), 증조부는 이기민(李機敏), 조부는 이재봉(李載鳳)이다. 아버지는 이지석(李祉錫), 어머니는 함안조씨(咸安趙氏)로, 1876년 7월 20일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에서 태어났다. 학산이 다섯 살 때 어머니인 함안조씨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 이지석은 담양전씨(潭陽田氏)를 계실(繼室)로 들였는데, 학산이 계실로 들어온 담양전씨의 마음을 헤아려 어머니로 모시고 순순히 따르니, 전 씨의 마음 또한 편안하였다. 학산은 부모에 대한 효심과 형제간의 우애를 중요히 생각하여 전 씨가 낳은 어린 딸 또한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는데, 이 딸이 시집을 간 후 형편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생계를 꾸리기도 했다. 그는 선조들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일을 처리할 때는 매사 신중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근심하지 않았고, 몸이 편치 않거나 기운이 쇠약해져 병을 얻더라도 그저 자연과 순리의 뜻이라 받아들이며 우울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학산이 이렇게까지 가정에 충실하고 헌신하며 효를 중시한 것은 그의 유학자로서의 면모가 돋보이는 지점이다. 그는 유학자로서 모범적으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고자 했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책임감이 강했던 그의 성향이 잘 드러나 있다. 사후 인물의 업적을 기리는 행장 특유의 서술 방식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모습들은 훗날 일제의 식민지라는 잔혹한 현실 속에서 그가 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고수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행장에서도 이런 그의 성품을 강조하기 위해 전반부에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쉽게 근심하지 않고 모든 일을 순리에 따른다며 받아들이는 태도는 단순히 유학자로서 지닌 면모라기보다는 산속에 은거

하는 삶을 택했던 그의 성향을 드러내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학문적인 방면에서 학산의 학문적 계보는 다음과 같다. 학산의 큰아버지 문산(文山) 부군 이홍석(李洪錫)은 허전(許傳)을 따라 공부했고, 문산이 허전을 통해 얻은 교훈은 집안 대대로 전승되었다. 학산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향의 명성 높은 학자 권봉희(權鳳熙)를 따라 시문을 평론하였는데, 그 내용이 우수하여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때 학산의 나이가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았으니, 동년배 중에 그의 재능에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학산은 뛰어난 자질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성을 남에게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으며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므로 그가 경전에 담긴 뜻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 듣는 이들이 모두 수긍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학산에게 저명한 스승의 문하로 들어가 명망 높은 가문을 이어가라고 조언을 건넸으나, 학산은 어찌 타인의 힘을 빌려 명성을 얻고자 하겠냐며 한사코 사양하는 모습을 보였다.²⁾

이러한 그의 고유한 성정은 어린 시절부터 학문적 소양을 인정받았지만,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게 만들었고, 본인의 신념과 소신을 지킬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다만, 이러한 성품은 당대의 주류 학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시도하면서도 산속에 은거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서 은거를 선택한 것은, 당대의 학자들과 논쟁을 통해 새로운 학문 세계를 모색하거나 문학적 소양을 고양하기보다, 그 자신만의 세계로 몰입하게 만들었기에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제기된다. 또한, 행장에서는 위와 같이 학산의 학문적 탁월함을 칭송하였으나, 정작 학산이 직접 남긴 저작의 양이 많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학산의 학문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그가 평소 교류하며 지냈던 문인들과 주고받은 서신 혹은 한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학산의 직계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그가 안동권씨(安東權氏)를 아내로

2) 李續雨, 『學山遺稿』 권3, 「行狀」.

맞이하여, 아들 셋을 둔 것을 볼 수 있다. 장남은 이병호(李秉灝), 둘째는 이병무(李秉武), 셋째는 이상수(李相修)였는데, 둘째 이병무는 세상을 일찍 떠났다. 학산의 첫째 아들 이병호는 장남으로서 학산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들이었다. 학산은 이병호의 학업 진전 속도와 학문에 임하는 태도를 보고 흠족해하였는데, 훗날 이병호는 학산이 남긴 작품을 모아 『학산유고』를 편찬했다는 점에서 부자(父子)간의 학문적 유대가 강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학산은 이병호에게 항상 건강 관리에 유념하라고 당부했는데, 이는 둘째 아들 이병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 학산에게 극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학산은 이병호가 집을 떠나 외지에 머물고 있을 때도 약과 함께 복용법을 서신에 담아 부칠 정도였다.³⁾

학산의 둘째 아들 이병무는 학산이 가장 마음을 썼던 아들이었다. 이병무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고 성격이 예민하여 사소한 일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지 못했다. 이를 지켜보던 학산은 이병무가 올바른 성정을 갖고 학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공섭에게 보냈다. 조공섭의 옆에서 지내며 그의 가르침을 얻고 이병무가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 밖에도 조공섭의 집이 유명한 의원에서 멀지 않아 진료받기가 수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병무를 그곳으로 보냈다.⁴⁾ 시간이 흘러 학산은 조공섭의 집에서 지내는 이병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부모는 자식을 하루라도 마음에서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강한 자식이라도 집을 떠난 지 오래되면 부모는 문밖을 내다보며 기다릴 것인데,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먼 곳에 있으니, 학산의 우려가 깊었던 것이다.

학산은 이병무에게 음식은 탈이 없는지, 기력은 충분한지 묻고, 그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에는 잘 다니고 있는지 상세히 물으며 아들을 걱정했다. 또한 몸을 해치는 일은 철저히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조급해하지 말고 건강이 호전되면 학업에 전념하라고 조언했다.⁵⁾ 그러나 학산의 이러한 조언과 걱정에

3) 李續雨, 『學山遺稿』 권2, 「答子秉灝」.

4) 李續雨, 『學山遺稿』 권2, 「與曹仲謹」.

5) 李續雨, 『學山遺稿』 권2, 「寄子秉武」.

도 불구하고, 이병무는 2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학산은 김서구(金瑞九)에게 답신을 보낼 때, 마치 가슴 속이 칼끝에 찔린 듯이 고통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힘들어했다. 세 아들 중에서도 이병무가 유독 학문에 몰두했었기에 학산이 큰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그런 아들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니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고 김서구에게 털어 놓았다.⁶⁾

둘째 아들 이병무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 학산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와 이후 학산의 시 세계에 고뇌와 상실감을 담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을 것이다. 속세와 단절하고 참혹했던 시기에도 의연함을 보였던 그가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은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 것은 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은 학산은 작품에 고뇌와 상실감이 드러나는 표현을 서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의 행장에서는 그가 살아있던 특정 시기와 관련이 있는 부분보다는 산속에서 일생을 보낸 그의 모습을 세상 모든 것에 초연하게 대처하는 유학자로 묘사하려고 한 점이 드러나지만, 실제 작품에서는 심경의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아들의 죽음을 겪은 후 학산의 회고시와 만시 등의 작품은 감정적 깊이가 더해졌음을 볼 수 있다.

학산의 셋째 아들 이상수는 앞서 형들이 학문을 닦으러 외지로 떠난 것처럼, 그 또한 서울로 떠났다. 그런데 이상수가 서울로 떠난 뒤 학산과 이병호, 그리고 그가 모시고 살던 어머니까지 모두 심한 병에 걸렸고 점점 병세가 악화되었다. 이에 장남이었던 이병호는 약을 챙겨 산속으로 들어갔고, 이상수 또한, 집안 형편을 고려하여 서울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학산은 이상수가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에게 서신을 부쳐 혹 서울에서 스승이나 벗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반드시 갚고 돌아오라고 일렀다. 그렇게 해야 훗날 남에게 원망이나 욕을 듣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평소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했던 학산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학산의 자손으로는 장남 이병호의 아들 셋, 이만희(李萬熙), 이천희(李芊熙),

6) 李績雨, 『學山遺稿』 권2, 「答金瑞九永菴」.

이홍희(李泓熙)가 있는데, 이천희는 학산의 둘째 아들 이병무의 양자로 들어갔다. 학산은 이만희를 하겸진에게 보내 학문을 익히도록 하였다. 학산은 비록 손자 이만희가 성정이 어리석고 둔하여 학업에 큰 성취를 기대하긴 어렵더라도 좋은 스승과 친구의 인도를 받아 학문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길 바랐다. 그리하여 자신과 절친한 벗인 하겸진에게 손자를 보내었고, 하겸진이 많은 노고를 들여 이만희를 가르치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⁷⁾ 학산의 셋째 아들 이상수의 세 아들로는 이광희(李光熙), 이윤희(李允熙), 이태희(李泰熙)가 있었다.

주목할 것은 학산이 자신의 손자를 하겸진에게 보낸 사실이다. 가문에서 학문을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학산은 손자 이만희를 당대 주류 학자 중 한 명인 하겸진에게 보냈는데, 이는 학산이 산속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도 당대 유럽들과 정신적, 학문적 연대를 이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적극적으로 저항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시대에 흐름에 따르며 식민지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통을 고수하고 우리 것을 잃지 않고자 하는 유학자적 면모를 볼 수 있다.

학산은 향년 65세로 1940년 5월 3일에 생을 다하였고, 한 달이 지나 마을 북쪽 장항산(獐項山) 선조들의 묘지 아래 묻혔다.

학산의 생애는 당대 학자들의 삶과 지식인 간의 교류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당시 문인들의 학문 형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대의 학문적 경향과 문인들의 실천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유암 의인석이 제시했던 기준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조선이 일제의 침략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하자 선비들에게는 국가존망의 변란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 당시 의암 유인석은 변란에 대응하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의병을 일으켜

7) 李續雨, 『學山遺稿』 권2, 「與河叔亨」.

적을 격퇴하는 ‘거의소청’(舉義掃淸)이고, 둘째는 목숨을 끊음으로써 지조를 지키는 ‘치명수지’(致命遂志), 마지막으로는 먼 곳으로 떠나 옛 전통을 지키는 ‘거지수구’(去之守舊)였다.

대다수 지식인들은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대항하였으나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농민들이 신식무기를 가진 일본의 정규군대와 맞서 싸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의병을 일으킨 소수의 선비들이 있었던 반면, 거의 대부분의 선비들은 의병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였다. 바꿔 말하면, 많은 선비들이 의병을 일으켜 무력으로 맞서는 적극적 저항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지조를 지키는 극단적 저항을 선택하기보다, 속세에서 떨어져 전통의 예법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을 한 선비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으로 떠나 타국으로 망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산속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초야에 은거하며 일제가 지배하는 세상과 연을 끊고 유교 전통 예법을 고수하였다. 이때 국내에서 전통 예법을 지킨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일제의 핍박을 받아야 하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비들이 비폭력, 무저항, 비타협적인 방식으로 일제의 식민 지배를 거부하고 지조를 지켰다.⁸⁾

이와 같이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은거라는 방법을 통해 옛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거지수구’는 많은 선비들이 택했던 현실적인 실천 방안이었다. 이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월파(月波) 정시림(鄭時林)이 강한 저항운동을 실천하지는 않았지만, 후학 양성에 기여하며 학문적 전통을 이어간 학자임을 밝히며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학자에 대해 조명한 바 있다.⁹⁾

이 논문에서는 학산이 적극적으로 항일 활동을 펼친 인물은 아니었는지라도, 유학자적 면모를 잃지 않고 학문적 전통을 지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당대의 학자들이 밀려 들어오는 외부의 지식 체계와 학문적 전통으로부터 국내의 것들을 지키고 계승시키려 했다는 점

8) 금장태, 『선비의 가슴 속에 품은 하늘』, 2012, 114~117쪽.

9) 안진오·오종일·최대우 외, 『호남의 유학자들』, 2016, 495~496쪽.

에서 학산의 학문 활동 또한 조명할 필요가 제기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산을 중심으로 그의 학문 활동을 밝히기 위해 작품을 검토하는 한편, 그의 생애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로써 행장을 살피고자 하였다.

2) 문인 교유 관계

학산의 대외 관계를 살펴보면, 그가 사람을 사귄 때 진실된 마음으로 접근하였고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발견하면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그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하였으니, 선한 자는 모두 학산과 친해지기를 원했고, 그와 친분이 두텁지 않은 자들도 학산을 나쁘게 말하는 자가 없었다. 학산은 하겸진, 조공섭과 우정이 깊었고 격의 없이 지내며 함께 학문과 덕을 닦았다. 하겸진은 학산이 학문적으로 재능이 있고 뛰어난 실력을 갖췄음에도 사람들이 그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그가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하겸진은 오직 조공섭과 자신만이 학산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¹⁰⁾, 학산이 비록 명성을 널리 떨치진 못했더라도, 선비들 사이에서 추대받았던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다.

하겸진은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 속에서 유학자로서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해 분투했던 인물로, 학산이 하겸진, 조공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은 비록 고립된 공간 속에서 머물던 학산이지만, 결코 시대의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다만, 학산의 학문적 세계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많은 교류를 했던 조공섭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재 조공섭의 학문적 특성을 살펴보면, 그는 창강 김택영과 교류하며 창강을 존경하고, 그에게 동조하는 세력으로 변모해 갔던 인물이었다. 김택영의 동조자들은 서울에 거점을 두었고, 경기도 개성, 경상도 대구, 진주, 밀양, 전라도 구례, 곡성 등으로 확산하여 전국 각지

10) 李續雨, 『學山遺稿』 권3, 「墓碣銘」.

에 포진해 있었다. 그중에서도 대구에 거주한 조공섭과 그의 학문적 동료들은 창강을 지지하는 강력한 조력자라 할 수 있었다.¹¹⁾

동시에 조공섭은 당대 대유학자이자 일제에 타협하지 않은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러한 조공섭에게 자신의 아들을 수학시킨 학산은 그만큼 조공섭을 신뢰했고, 당대의 유학자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이런 부분에서 학산은 국가 정세에 관심을 두고 있었음이 드러나는데, 조공섭은 항일운동을 벌였던 김택영을 비판받을 때마저도 전적으로 지지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물과 교류하고 아들을 수학시켰다는 사실은 학산이 조공섭의 사상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존중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조공섭과 학산이 주고받은 간찰 및 시적 교류는 산속에 은거했던 학산의 문학적 세계관을 예측케 하고 그의 사상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편, 학산은 동산(東山) 이태상(李泰翔)과도 교류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그가 마항(馬港)에서 지낼 무렵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태상은 신념이 굳건하고 식견이 밝은 유학자로, 학산은 그의 생각과 학문적 세계관을 잘 헤아려 주었다. 학산은 매사에 침착하고 신중했으며, 성실했는데, 그의 이러한 점은 이태상과 비슷한 지점이었다. 이태상과의 교류는 단순히 이웃 간의 친목을 넘어 격동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향촌 유림이 고수하고자 했던 유교적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공유하는 정신적 연대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¹²⁾

이밖에 학산은 김황(金樞)과도 인연이 있었는데, 이를 알고 있던 첫째 아들 이병호가 『학산유고』를 편찬하기 위해 그에게 묘지명을 써달라고 부탁했고, 별기(別記), 세계(世系), 원류(源流) 등 흩어져 있던 기록을 모두 모아 김황에게 보냈다. 김황은 행장에서 학산과 그의 아들 이병호를 높이 평가했는데, 학산은 품성이 바르고 교양이 있으며, 그의 성실함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기에

11) 한영규, 『창강 김택영 평전-중국과 한문을 택한 마지막 문인』, 2024, 105쪽.

12) 李繼雨, 『學山遺稿』 권3, 「行狀」. “公之歿也, 曹公李公先已去世, 河公以詩挽公, 有曰: 龍子敦而慎, 安豐孝且慈, 是皆由自性, 非用藉求知, 知者以爲得實云.”

충분하다고 하였다.¹³⁾ 또한, 김황은 행장 말미에 자신과 학산은 우애가 돈독하다고 언급하였으니, 학산은 당시 학문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이들과 교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주학파의 학통을 이은 저명한 유학자였던 김황이 학산의 묘지명을 작성하고 행장 말미에 그와의 돈독한 우애를 직접 명시한 점은 학산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학술적 근거를 제공한다. 학산의 품성과 성실함을 높게 평가한 것은 개인에 대한 칭찬을 넘어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 속에서도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향촌에서 도학을 실천한 학산의 삶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학산이 저항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고 고수하며 미시적인 실천을 수행한 것 자체로 당대의 동료 유학자들에게 학문적인 기여를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산이 교류했던 이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그에 대한 평가가 일관적인 것은, 그의 학문적 성취와 함께 인품이 뛰어났음을 예측케 한다. 실제로 학산은 이하경(李夏卿)이 외국으로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가족을 생각하여 속히 귀국하기를 권하는 것이었다. 항상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학산은 이하경에게 부디 자식과 아내가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며 귀국 준비를 서두르라고 하였다.¹⁴⁾ 그러면서도 혹여 자신이 하는 말이 이하경에게는 비현실적인 말로 들리지는 않을까 고민하였는데, 이는 학산이 늘 겸손한 태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솔직하게 말하는 심지 굳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하경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만류하며 속히 귀국하여 가족을 돌보라고

13) 李續雨, 『學山遺稿』 권3, 「行狀」. “往歲丙子, 書卿君以公六十一壽, 具公事行爲徵言, 要余序之. 其謂余少習於公也, 及公之喪之明年, 書卿君方乞銘公墓, 復將前所具徵言與別記世系源流事行零錄數條, 齎書遠寄, 請綴合爲狀. 余不佞, 言之無足輕重, 而終始辱公父子眷念特勤, 誼不敢辭. 抑書卿君之錄, 已自典雅有法, 而其誠懇又足動人. 持是以往, 豈不可以取信當世? 區區依本纂次, 只以道達孝子之情, 而爲易於案據地, 知言君子, 請有「以見采焉」.”

14) 李續雨, 『學山遺稿』 권2, 「與李夏卿麟惠」.

권한 서신은 학산의 보수적이면서도 견고한 유교적 윤리 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대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피해 해외로 유학이나 이주를 택하는 지식인들이 늘어나던 상황에서, 학산이 ‘자식과 아내가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강조하며 귀국을 종용한 것은 가정을 지키는 태도야말로 유학자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수신(修身)의 도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조언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것을 염려하면서도 직언을 아끼지 않은 이 일화는, 그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교적 도덕률을 기준으로 삼았던 심지 굳은 지조의 소유자였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윤리적 태도는 뒤이어 서술할 그의 시 세계에서 현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고고한 은자(隱者)의 목소리로 발현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3. 『학산유고』에 수록된 한시 고찰

조선 시대에 한시는 상류층이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중요한 매체였고, 과거 시험의 과목이자 교류의 수단이었으며, 동북아 외교의 주요 관례이자 문화교류의 핵심을 이루었다. 특히 한시를 주고받는 문화는 일상 속 한문맥 문화 관습이 드러나는 중요한 표지이다. 책의 서발문을 통해 한시를 주고받거나, 지인의 일생일대의 순간을 기념할 때, 또는 지인이 멀리 떠나거나 몸이 편치 않은 상황에서 한시를 지어 보내는 문화는 식민지 시기의 근대 문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졌다.¹⁵⁾

근대시 형성기는 “한시를 비롯한 한문학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로, 당대 문단 전반에서 한시 창작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898년부터 1925년까지 근대 매체에 게재된 한시를 모두 합하면 총 3만여 수에 달한다. 이렇게 “25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방대한 양의 한시가 독자층에 소개된 것은 한국 문학사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평가된다. 이는 한자문화권인 일본에

15) 정기인, 『한국 근대시의 형성과 한문맥의 재구성』, 2020, 40쪽.

서 메이지 30년대(1897~1906)에, 그리고 20세기 초반 중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이다. 따라서 최남선과 같은 시인이 국문시를 쓰는 과정에서 한시를 의식하고, 나아가 이를 번역하고 창작한 행위는, 유별나게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했던 노력이 아니라 당대 한문맥을 자연스럽게 반영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한시뿐만 아니라 당시 식민지시기 조선인이 간행한 단행본 중에 한문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7.27%에 달했다. 근대적 매체를 통한 유통 외에도 다양한 판본의 개인 문집과 한시 선집이 활발히 유통되었던 양상까지 고려한다면, 당대 한시의 융성은 가히 획기적인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⁶⁾

근대시 형성기의 한시 유통의 활발함은 단지 그 시기 주요 시인들의 활동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문인과 유학자들 역시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한시라는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기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가 주목하는 학산의 문집은 그 당시 한시 문화가 발전한 배경과 깊게 연결된 실증 자료로서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산유고』는 총 3권 1책으로 권1에는 시 99수, 권2에는 서(書) 18편, 기(記) 1편, 제문(祭文) 9편, 행록(行錄) 4편, 권3은 부록으로 행장(行狀), 묘지(墓誌), 묘갈(墓碣), 식사당기(式似堂記), 식사당상량문(式似堂上樑文), 식사당명(式似堂銘), 발(跋)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주제별로 각각 만시(挽詩) 34수, 교유시(交遊詩) 31수, 산수시(山水詩) 22수, 회고시(懷古詩) 7수, 송별시(送別詩) 5수로 총 99수이다.

본고에서는 수록된 작품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학산의 생애에 따른 흐름 속에서 더 깊게 살펴보려 한다. 그의 시 세계는 산수 자연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선조들에 대한 기억, 당대 문인들과의 교유, 가까운 벗을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나라 상황에 대한 걱정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내용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많은 학산의 삶을 비

16) 정기인, 『한국 근대시의 형성과 한문맥의 재구성』, 2020, 57~59쪽.

추며, 그가 매 순간 느꼈던 감정 상태를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보여준다.

1) 산수시에 나타난 자연과 공간의 풍경

먼저, 학산이 평생 동안 마주했던 자연과 누정(樓亭)의 공간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예전의 문인들에게 산수 자연과 누정이라는 곳은 자신들의 생각과 철학을 나타내는 배경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학산 산수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누정은 문인들이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자 외곽에서의 한적한 삶을 원했던 은거 취향을 충족시키는 곳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주로 심사가 복잡할 때 누정에 올라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때로는 지인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었으며, 자연 속에 깊게 취해 시를 쓰는 데 집중하기도 했다. 시흥(詩興)이 일 때면 단 한 줄 속에 아름다운 누정의 사계절을 담기도 했다. 옛 문인들과 은일자들은 정자가 초라하고 오르기 불편하더라도 이에 개의치 않았고 그저 자연을 율타리 삼고 구름을 배경 삼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했다.¹⁷⁾

이처럼 옛 문인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마음은 평생 산속에서 보내며 자연과 깊이 연결되었던 학산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또한 학산의 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앞의 경치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산의 시는 대상을 섬세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아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의 시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학산이 쓴 산수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자연 풍경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 구절마다 시인의 깊은 고뇌와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시 속에서 감정을 드러낼 때 외적인 수사에만 집중하거나, 반대로 개인의 감정이 너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산은 주위 경치를 생생하게 그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적절하게 엮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의 마

17) 허균, 『한국의 누와 정: 선비, 마음을 다스리다』, 2009, 6쪽.

지막 대목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어 독자들이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학산 산수시의 특징은 그가 고향 의령에 위치해 있는 강선암(降仙巖)을 유람하며 지은 작품 <용문 강선암(龍門降仙巖)>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 그의 감정이 어떻게 뚜렷하게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의 정령이 나를 돌봐준 덕에	我賴山靈護
지팡이 짚고서 맑은 물과 바위를 바라보네.	倚筇水石清
신선이 내려왔다지만 끝내 보지 못하고	降仙嗟不見
피꼬리 소리만 하염없이 들려오네.	無限黃鸝聲

강선암을 배경으로 한 위 시는 주변 풍경을 상세히 그리면서도 시의 후반부에서 학산의 내면 속 심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1~2행에서 학산은 자신을 산의 정령에게 보살핌 받는 존재로 표현하며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흐르는 물과 바위를 바라본다고 하였는데, 이는 눈앞에 보이는 자연 풍경과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학산의 감정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3행과 4행이다. 3행에서는 바위의 이름에 담긴 전설처럼 이곳에 왔다던 신선의 흔적을 직접 보지 못한 아쉬움을 ‘끝내 보지 못했다’고 표현하며 솔직하게 토로했다. 4행에서는 학산이 전하려는 의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학산은 신선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피꼬리 소리로 가득 채우고 있다. 인간의 욕망과 집착이 없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새소리를 통해 자연이 주는 순수한 생명력 넘치는 기운에 깊이 감응하는 자신의 내면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학산은 보지 못한 대상을 청각으로 대체하며 자연의 생명력을 형상화하였다. 위 시는 자연 경치와 학산의 진솔한 감정이 어우러진 학산 산수시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렇듯 자연의 생명력에 깊이 감응했던 학산의 시선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정자’라는 공간에 머무를 때 한층 더 깊은 여유를 느끼는데, 학산에게 ‘정자’는 풍경과 감정을 연결해 주는 매개로 기능했던 것이다. 한평생 자연의 정취를 누리며 살았던 그의 내면세계는 침간정에 묵으며 창작한 <침간정(枕澗亭)에서 묵으며(宿枕澗亭)>라는 작품을 통해 잘 보여진다.

푸른 산 한구석 사들여 정자 한 칸 짓고	買得靑山起一樓
한가로운 구름과 경치가 아침저녁으로 모였다 흩어지네.	悠々雲物暮朝收
향기로운 술을 부지런히 권하니 인정 알겠고	香醪勤辦人情見
맑은 기품을 스스로 지키니 옛스런 빛이 드러나네.	淸表自持古色浮
숲속 깊은 그늘엔 새소리가 가득하고	林樾深藏禽語裡
시냇물 소리 들려오는 머리맡에는 정자의 창문을 일부러 열어두네	巖扉故闢水聲頭
나 역시 본래 안개와 노을을 사랑하는 병이 있어	我今亦有烟霞癖
시냇물을 베개 삼아 밤을 지새우며 세상의 근심을 씻어내네.	枕澗經宵滌世愁

위의 시는 학산이 안동의 침간정(枕澗亭)¹⁸⁾에 머물며 쓴 것인데, 속세를 떠나 자연의 정취를 느끼는 듯한 모습에서 자유로운 분위기가 돋보인다. 침간정은 용와(慵窩) 유승현(柳升鉉)이 학문을 가르치던 강학당으로 용와종택(慵窩宗宅) 옆에 위치해 있다. 「침간정기(枕澗亭記)」를 살펴보면 “건물은 모두 세 칸인데, 가운데는 방, 동쪽은 마루, 서쪽은 서고(書庫)이다. 현관은 기오(寄傲)라 하고, 방은 양옹(養慵)이라 하며, 이들 전체를 ‘침간정’이라 하였다. 정자의 구조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소박하고 깨끗하여 그 모습이 산수(山水)와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¹⁹⁾라며 침간정 주변 경관을 상세히 묘사하고 자연과

18) 현재는 경상북도 구미시로 이전되었다.

19) 柳正源『三山先生文集』권8, 「枕澗亭記」. “余按岐麓之分. 有前後兩條. 其前者西來. 向南而止. 儼然端重. 爲亭之背. 其後者自南而西. 向北而前. 若拱若揖. 爲亭之面. 溪從中谷來十里. 而遙循亭除而折旋. 蓋山之初發. 崖峽如束. 故水瀉其中. 湍急射鮒而已. 及山之展拓寬曠. 然後水亦縈迴灣環. 膾有窈深幽靜之趣. 而斯亭實據而有之. 爲屋凡三間. 中爲室. 東爲堂. 西爲藏書小樓. 軒曰寄傲. 室曰養慵. 總而顏之曰 枕澗亭. 亭之制度. 不宏不侈. 只蕭灑淨潔. 欲其與山水稱也.”

어우러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은 학산이 시 속에서 그려낸 정자의 모습과 풍경을 묘사한 대목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은거 생활을 하며 많은 지역을 돌아보았던 학산은 그 여정 중에 많은 사찰과 정자에 들렀고²⁰⁾, 그 속에서 느꼈던 고요함과 평화로운 감정은 계속해서 그의 작품에 드러난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시의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3행과 4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행에서는 침간정을 지키는 학산의 후손이 방문한 이들에게 술을 권하며 정을 나누는 장면을 보여주고, 4행에서는 화려하지 않고 예스러운 모습의 침간정을 묘사했다. 정자를 바라보던 학산의 시선은 주변 풍경으로 확장되는데, 5행과 6행에 이르러서는 공간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5행에서는 침간정 특유의 깊은 고요함이 나타나 있고, 6행에서는 일부러 창문을 열어 자연을 온전히 느끼고자 하는 행위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곧 세상의 시끄러움과 소란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학산은 정자의 외형보다는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 같은 청각적 요소에 주목하며 공간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마지막 구절인 7행과 8행에서는 침간정에서 보내는 하룻밤이 그저 한순간의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근심을 없애는 시간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가 ‘침간(枕澗)’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자의 공간적 의미를 직접 실천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누정에서 자연의 본질을 느끼며 홀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던 학산의 은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적 성찰을 넘어 벗들과의 감정적 교류로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간다. 위 시에서는 세속의 소란스러움과 번덕스러운 인심에 지쳤던 학산이 은거지에서 벗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잘 보여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학산의 은거는 결코 고독한 단절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만나며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 李續雨, 『學山遺稿』 권2, 「游東京記」. “翌朝, 車夫告病, 更賃一車, 到金井山梵魚寺, 峰巒秀麗可愛, 楓葉如錦繡, 所謂霜葉紅於二月花者此也. 又至通度寺, 々外泉石, 多有奇觀. 入寺, 塔影徘徊, 日中梵閣鋪列一區. 半餉休憩, 神精蕭爽, 覺與人境隔異.”

2) 교유시를 통해 본 학문적 연대와 정서적 교류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의 교류를 중요시했던 학산은, 복잡한 현실과 혼란스러운 국가 정세로 인해 산속으로 물러났지만, 학문적 전통을 이어가는 학자들과의 소통에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열정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산의 이러한 면모는 <조주현(曹周見) 용섭(龍變)이 찾아와, 시사의 여러 선비들과 함께 문산정(文山亭)에서 모임을 열다(曹周見龍變見訪, 與社中諸公, 開會于文山亭)>라는 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험한 돌길은 참으로 걷기 어려운데	崎嶇石逕最難行
성곽 밖의 강물 빛이 사방의 시야를 밝게 비추네.	郊外江光八眼明
옛 벗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수레를 불러 타네.	命駕故人曾有約
거문고를 품에 안고, 홀로 그리워하며 얼마나 애를 태웠는가.	抱琴幽夢幾勞情
작은 연못의 물결이 일렁이니 물고기는 숨어들고	小塘水活魚能伏
봄이 깊어가는 숲속에는 새들이 제멋에 겨워 우네.	萬樹春深鳥自鳴
난초와 혜초처럼 본래 뜻이 같은 우리는	蘭蕙元來同氣味
술잔을 기울이며 평생의 회포를 나눈다네.	好將樽酒話平生

위 시는 학산이 조용섭(曹龍變)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과 함께 큰아버지 이홍석(李洪錫)이 세운 문산정에서 시사(詩社) 모임을 가졌을 때의 정경을 읊은 작품이다. 주현(周見) 조용섭(1870~1925)은 학산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심재(深齋) 조공섭(1873~1933)의 형으로, 그가 찾아오자 학산이 시사 모임을 열었다. 문산정(文山亭)은 학산의 고향인 경남 의령 중교리에 위치해 있는데, 학산의 큰아버지 문산(文山) 이홍석이 세운 서당이다.²¹⁾

시사의 선비들이 학문적 교류를 위해 모임 장소로 문산정을 선택했다는 점은 그들이 문산 이홍석에 대한 깊은 존경을 가지고 있고 문산정이 지닌 특별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먼저 시의 앞부분에서는 학산이 문산

21) 문산(文山) 이홍석(李洪錫)의 손자인 삼성그룹의 창립자 이병철(李秉喆) 회장 또한 어린 시절 이곳에서 학문을 익혔다.

정을 향해 가는 여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가는 길이 고되다고 하면서도 주변 풍경은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다. 학산의 거처와 문산정의 위치가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동하는 동안 주위를 자세히 둘러보며 물고기와 새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이때 그가 실제 이동했던 거리는 짧았지만 굳이 험한 돌길을 지나간다고 묘사한 것은 세상과 떨어진 조용하고 평온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행장의 기록에서는 학산을 초연하고 차분한 인물로 묘사하였으나, 4행에서는 학산이 홀로 은거하며 느꼈던 내면의 우울함과 고뇌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학산은 외로움 속에서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인데, 이런 외로움과 걱정은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벗들과 어울려 술잔을 나누는 것으로 잠깐이나마 위안을 찾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5행을 보면, 상술했듯 「문산정기」에서도 문산이 연못을 파고 물고기를 길렀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학산은 이를 긴 설명 대신 시적인 표현으로 간결하게 담아냈고 독자가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 그의 묘사가 얼마나 섬세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문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던 학산의 성격이 드러나고, 그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진다. 학산의 시에서는 그가 벗들과 모여 함께 술을 마시고 회포를 푸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장면은 학문적인 소통과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의 모습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시에서는 산속에서 자신과 뜻이 맞는 이들과 문학적으로 소통하며,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정신적 위안을 얻고 유학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점차 확실히 해 가는 학산이라는 인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새해 첫날이 밝자 바로 찾아와준 옛 친구에게 고맙구나. 多謝故人歲首來
그대가 묻기를, “깊은 은거의 뜻은 언제 다시 돌아오려나?” 爲言幽夢幾時回
한 해의 봄 기운은 매화가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一年春意梅先得
한밤중 시심은 넘쳐나는데 물시계 소리마저 나를 재촉하는구나 半夜詩情漏欲催

시인들의 풍류 속에 술잔이 끊이질 않고	騷客風流樽有酒
마을 아이들의 노래와 북소리에 달빛 맑은 누대가 울리네.	村兒歌鼓月明臺
만남은 짧고 이별은 잦으니	會無多日離多日
이 뒤로 이처럼 맑은 모임을 또 누구와 다시 할 수 있을까?	從後清遊孰與開

<이영후가 나를 찾아와 족조 이규하, 당형 진우, 족숙 종택을 초대해 함께 읊음(李碧灘永厚見訪,邀族祖愚川圭夏堂兄松年震雨族叔竹林鍾澤共吟)>

위 시는 문인들이 모여 시회(詩會)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있다. 벽탄(碧灘) 이영후(李永厚)는 학산과 사돈 관계에 있던 문인으로²²⁾, 그가 학산을 방문하자 학산이 다른 이들도 초대하여 시를 함께 읊고 만남의 장을 열었던 것이다. 1~2행에서는 신년을 맞이해 자신을 찾아와준 이영후에 대한 학산의 감사한 마음과 학산을 그리워했던 이영후의 마음이 드러난다. 이영후와 학산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자주 만나기 어려웠기 때문에²³⁾ 그리움이 더 컸을 것이고, 학산은 이러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시속에 표현했다. 봄이 다가오니 문인들은 시 창작에 대한 감흥이 더욱 샘솟는데, 3~4행에서는 봄을 알리는 ‘매화’가 등장하고 시간을 재촉하는 ‘물시계’ 소리가 이어지며 학산의 시적 감흥이 더욱 짙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5~6행을 보면 학산과 이영후가 이규하(李圭夏), 이진우(李震雨), 이종택(李鍾澤)과 함께 시를 낭송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마음과 사상이 잘 맞는 이들이 모여 함께 시를 읊고 풍류를 즐기니, 더없이 즐거운 모습이 「籬山社與李梅旅許叅奉壕共賦」에서 학산이 느끼는 감정과 더욱 대비되어 보인다. 「籬山社與李梅旅許叅奉壕共賦」에서는 북소리를 요란하다고 표현하였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노래하며 북을 치는 모습을 흥겹게 바라보는 듯하다. 7~8행에서는 미리 작별을 걱정하는 모습이 지금 함께 교류하는 시간이 학산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표현하고 있다. 또, 이 모임이 언제 다시

22) 李績雨,『學山遺稿』 권2, 「與李琪玉永厚」. “世同里閭, 姻誼非不重疊, 而又添自附, 淺劣之幸, 云如之何?”

23) 李績雨,『學山遺稿』 권2, 「答李琪玉」. “阻莫近, 若時不禁, 憧憧馳想.”

열릴 수 있을지 아쉬워하는 장면에서 벗들과 함께 시를 읊는 것을 즐겼던 학산의 성향이 돋보인다. 이처럼 5~6행의 흥겨움과 7~8행의 아쉬움은 뚜렷한 대비를 이루며, 그가 순간의 즐거움보다는 인연의 소중함에 더 깊은 정서를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숲속에 거처한 세월이 길어지니 늙어가는 처지에 슬픔만 더해지네.

林居滯寂悵衰年

두 벗이 오늘 나를 찾아오니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二客今來喜欲顛

우리 셋은 일생을 만나지 못했는데 此世吾儕俱不偶

서로 멀리 하늘 끝에 떨어져 있으니 그리움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相思況住各天邊

<손님을 맞이하며(客來)>

일생을 산속에서 은거하며 지냈던 학산은 나이가 들어 병이 들고 쇠약해질수록 젊은 시절 벗들과 교류했던 순간들을 그리워했다. 그러나 함께 풍류를 즐기고 시와 서신을 주고받았던 이들도 모두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니 그들이 학산을 찾아오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자기 몸도 성치 않고 어머니의 병시중을 들며 마치 고립된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던 학산은 세월이 흐를수록 고독함이 깊어졌던 것으로 보인다.²⁴⁾ 그런데 위 시에서 드러나 있듯이 오랜만에 벗들이 학산을 찾아오니 재회에 대한 기쁨이 극에 달한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동안의 그리움을 쏟아내듯 한탄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그려냈다. 학산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삶의 여유를 찾게 해줬던 것은 문인들, 특히 유학자들과의 교류였다. 이 시는 은거 생활에 쌓인 쓸쓸함과 두 벗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주는 기쁨을 함께 그려내며 학산의 정서를 드러낸다. 특히 ‘하늘 끝’이라는 공간적 이미지는 그리움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 있었는지를 알게 해준다.

24) 李績雨, 『學山遺稿』 권2, 「與趙仁寺俊奎」. “績雨, 老親, 以浮症欠和, 有久咳嗽之症隨作, 煎迫無喻, 而重以賤軀, 爲寒疾所困, 苦惱苦惱!”

3) 회고시에 나타난 선조들의 자취

앞서 살펴본 시들에서는 벗들과의 관계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고자 하는 학산의 적극적인 면모를 보았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회고시는 학산이 선조의 자취를 따라가며 유학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학산의 회고시는 그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시인이 선조와 관련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그곳에 담긴 선대들의 정신을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학산은 자신의 개인적인 추억을 읊기보다는 조상의 흔적이 있는 특정 장소를 언급하며 그 지역의 경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던 학산이 유교적 가치에 집중하고,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고자 했던 노력과 깊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점에서 학산의 회고시가 한국 문학사에서 지니는 가치와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예로 <중화당을 다시 지은 날 감회를 읊음(中和堂重建日有作)>이라는 시를 통해 학산이 선조들의 흔적 앞에서 느꼈던 감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도문산 아래 도계의 동쪽에	道文山下陶溪東
옛 현판과 새 정자가 이제 이 가운데 들어섰네.	舊扁新堂起此中
산해의 명망 높은 가문은 경의로 소문났고	山海高門聞敬義
임진왜란 지난날에 공훈을 받았다네.	龍蛇昔日策勳功
뜰에는 오동나무와 대나무를 심어 새로운 달을 맞이하고	庭栽梧竹迎新月
땅은 오래된 가래나무와 뽕나무로 둘러싸여 옛 가풍을 이어받았네.	地繞梓桑襲古風
이 누대에는 임금 향한 그리움이 가득한데, 어느 곳인가?	臺有戀君何處是
지금껏 저문 강의 빈 허공만 손짓하여 가리킨다네.	至今指點暮江空

중화당(中和堂)은 학산 가문의 화헌당(和軒堂) 이종욱(李宗郁)을 기리고자 자손들이 세운 건물이다. 이종욱은 자(字)가 희문(希文), 호(號)가 화헌(和軒)으로, 증좌승지(贈左承旨) 유(有)의 아들로,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문인이다.

모친이 병환에 걸리자 ‘아들이 빌어 대신 병을 옮겨주옵소서’하고, 모친상을 당하자 소찬에 밥을 먹고 눈물로 상을 마쳤다고 하니, 효심이 지극하였다. 후에 상복을 벗고 시를 지어 “죄악이 극심하여 어머니를 옮겨가니 지금까지 이 몸이 온전한 것이 부끄럽도다. 만일 형제가 없어 혼자 올었다면 한 마디 심장조차 모두 타버렸을 것이다.”(罪逆深來移所天至今猶愧此生全若非兄弟分哀漏一寸心臟已盡煎)라 하였으니, 그가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효성이 지극하고,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몸 바쳐 싸우며, 후대를 위한 교육까지 실천했던 화현이 자손들에게 모범이 되어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3행과 4행에서는 중화당을 건립한 이유가 드러나는데, ‘명망 높은 가문’이란 학산의 가문을 가리키는 것이고, 집안의 전통을 중시하고 이를 기리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학산과 그 집안의 유학적 면모가 드러난다. 중화당을 지을 당시 학산의 첫째 아들 이병호가 조공섭에게 기문(記文)을 지어달라고 직접 부탁했던 사실 또한 그들이 전통을 중시하고 선조를 기리는 것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⁵⁾ 중화당이 재건된 날 그 감회를 시로 지은 학산이 중화당의 위치를 말한 뒤, 곧바로 가문의 명망이 높다고 표현한 것은, 그 또한 가문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다.²⁶⁾

5행에서는 새로운 달을 맞이한다는 표현을 통해 중화당이 재건된 이후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는 의지가 돋보이고, 나무를 소재로 삼아 강직하고 굳은 신념을 지키려는 모습이 드러난다. 6행에서는 중화당의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그 주변 풍경을 묘사하며 옛 기풍이 흐르는 분위기를 묘사하는 것이 마치 이상적인 공간을 연상시키는 듯하다. 7행과 8행을 보면 학산이 옛 기억을 회상하며 쓸쓸해하는 감정이 드러나는데, 자신이 기억하던 모습이 아닌 것을 아쉬워하

25) 曹兢雙『巖棲集』 권21, 『中和堂記』. “李氏之先, 有和軒公諱宗郁, 當穆陵光海間, 進而舉義殲賊之勞, 紀名勳券, 退與林下數賢, 有過從講磨之樂, 至今江渚之間, 隱隱有遺跡焉. 於是諸爲後孫者, 構一屋於所居以追思之, 而問名與記於余. 余爲取其地名, 而配以公之所自號, 曰中和堂.”

26) 실제로 학산 가문에는 이후에도 대대로 특출난 인물들이 배출되었는데, 삼성그룹의 창립자 이병철 회장 또한 학산 가문의 인물이다.

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저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세월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서글프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다른 문인들과 교류하며 유학자로서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학산의 내면이 잘 드러나 있다.

첨두재는 동해 바다 끝에 우뚝 솟아	齋廬高出海東邊
위로는 높은 산을 바라보고 아래로는 흐르는 강을 굽어보네.	仰有高山俯逝川
머나먼 길 짧은 지팡이를 짚고 느지막이 도착해서	百里短藜來我晚
길고 긴 밤 술 한 잔 기울이며 그대와 함께 잠에 드네.	一樽長夜與君眠
창문 앞의 성긴 대나무는 푸른 그림자를 드리우고	疎篁垂綠窓前砌
늙은 살구나무는 비 온 뒤 하늘 아래 짙은 그늘을 드리우네.	老杏繁陰雨後天
오늘날 이곳에 올라서니 지난날의 위엄이 다시금 떠오르는데	今日登斯多舊威
명옹이 업적을 세운 것은 과연 어느 해였던가?	明翁立績昔何年

<삼계의 노씨 맥 첨두재에 머물며(宿三溪盧氏瞻斗齋)>

학산이 지은 회고시는 자신의 옛 추억을 회상하는 것보다는 특정 장소에 방문하여 선조를 떠올리며 시를 읊는 경우가 많다. 위 시는 학산이 첨두재(瞻斗齋)에 머물며 명암(明庵) 노경종(盧景宗)을 떠올리고 지은 시이다. 첨두재는 첨두서원(瞻斗書院)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첨두서원은 명암(明庵) 노경종(盧景宗)을 추모하여 교하(交河) 노씨(盧氏)의 후손들이 건립한 재실 첨두재를 승격시킨 것이다.

명암 노경종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민심을 돌보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구국(救國) 활동을 직접 실행했던 인물이다. 1588년경 백성들 사이에 왜적이 침범한다는 소문이 돌아 민심이 크게 동요하자 명암은 “내가 임금을 버린다면 누가 도적을 막을 것이며, 양친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내 어찌 나라를 위해 죽음을 아끼겠는가?”하며 수습하였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명암은 직접 의병을 모집하여 전쟁에 나아갔고, 성을 점령하여 민심을 안정시킨 뒤에는 매복과 추격 작전을 써서 큰 전공(戰功)을 올렸다. 이외에도 많은 전공을 세우

고는 훗날 학문에 전념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그가 거처하는 집을 침두헌(膽斗軒)이라고 이름 지었으니, 이는 북두칠성을 임금에 비겨 변치 않는 충성심을 다짐한 뜻이었다.²⁷⁾ 그러므로 학산이 침두재에 머물렀을 때 명암의 업적을 회상해 보게 된 것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위 시를 보면 먼저 1~2행에서는 침두재 주변을 둘러보며 풍경을 감상하는 학산의 모습이 드러난다. 3~4행을 보면 학산이 명암을 기리고자 고된 여정을 지나 마침내 침두재에 도착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고요한 밤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명암을 추억하는 듯하다. 5~6행에서 학산이 묘사하고 있는 침두재는 주변 경관이 수려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마저 감도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전공을 세운 명암의 위엄이 느껴진다. 마지막 행에서는 학산이 명암의 업적을 돌이켜 보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임진왜란 전후로 여러 해에 걸쳐 공을 세운 명암이기에 감탄과 동시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듯한 모습이다.

학산의 회고시를 보면 오직 자기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언제나 선조를 기억하며 기리고자 하는 그의 사상이 드러난다. 동시에 생전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공경하고 예의 있게 대했던 학산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아래의 시도 이와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벽한정은 지금도 맑고 고요한데	碧寒亭子至今清
그 고결한 풍모를 떠올리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지네.	想得高風心自驚
이 세상 수많은 선비들에게 전하노니	寄語世間多少士
선생께서 남기신 훈계를 평생토록 마음 깊이 새기시게나.	先生垂戒鑄平生

<벽한정 시에 차운하여 읊음(碧寒亭謹次板上韻)>

차운시를 짓는다는 것은, 원시의 작자에 대한 존중이 전제된 것이다. 특히 스승의 시를 제자가 차운하는 것은 조선 시대에도 스승과 제자 간에 존경의 마

27) 구산우·이정수·장성진·최정용, 『경남의 서원』, 2008, 124~125쪽.

음을 표하는 방법이였다.²⁸⁾

벽한정(碧寒亭)은 무민당(無悶堂) 박인(朴愼)이 학문을 익히고 연구하던 곳으로, 성리학을 공부했던 유학자들을 위해 지어진 정자이며, 현재 경상남도 합천군에 위치해 있다. 박인은 자(字)가 백화(伯和), 호(號)가 무민당(無悶堂), 임현(臨軒)으로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그는 내암(來庵) 정인홍(鄭仁弘) 선생의 문하에서 ‘경의지학’(敬義之學)의 요체(要諦)를 탐구했고, 당시 내암의 명성을 듣고 모인 문도들과 교유하기도 하였다. 무민당은 품성이 너그럽고 문장을 짓는데 능했으며, 젊은 시절 과거에 여러 번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아 학문 연구에만 매진했다. 그는 남명선생을 존모하여 남명학파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힘썼고, 훗날 병환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산해사우원원록』의 편찬 작업에 노력을 기울였다. 무민당은 당시 남명에 관한 불리한 정치·시대적 상황과 본인이 처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객관적 기술을 위해 주력했다.²⁹⁾ 이처럼 무민당은 여러 방면에서 선비들의 귀감이 되었고, 학산 또한 그를 존경하였다.

학산은 벽한정에 방문하여 무민당을 회상하며 위 시를 지었는데, 시에서는 그에 대한 감탄이 느껴지고, 더 나아가 3~4행에서는 많은 유학자에게 무민당이 남긴 교훈과 그 뜻을 전해야 한다는 학산의 의지가 돋보인다. 실제로 학산을 포함한 張福樞³⁰⁾, 李震相³¹⁾, 許愈³²⁾, 閔在南³³⁾, 朴致馥³⁴⁾, 李承熙³⁵⁾가 벽한정

28) 정기인, 『한국 근대시의 형성과 한문맥의 재구성』, 2020, 45쪽.

29) 사계명; 남명연원 사숙 인물고(남명학연구원) <http://www.nammyung.org/>

30) 張福樞, 『四末軒集』 권1, 「碧寒亭 敬次朴無悶堂板上韻」, “先生天下士, 蘆月秋江船. 不換三公意, 遺亭幾百年.”

31) 李震相, 『寒洲先生文集』 권2, 「碧寒亭」, “徵士遺堂屹泗東, 辨時花葉(元韻中語)至今同. 澄潭得月天凝碧, 落照銜山壁暈紅. 倦客來遲秋色裏, 名樓浮在水聲中. 想像先生嘉趣趣, 葦蘆寒裏問漁翁.”

32) 許愈, 『后山先生文集』 권2, 「謹次碧寒亭板上韻二絕」, “伽椰西畔一區清, 雲鳥川魚穩不驚. 欲識先生心地潔, 請看明月水中生. 某里先生鬢欲絲, 立巖夫子不求知, 可憐一片西湖宅, 巖隙栽花辨四時.”

33) 閔在南, 『晦亭集』 권2, 「碧寒亭(在陝川伊西里 朴無悶堂江亭)」, “秋風乍倚碧寒亭, 雲掩伽山不入局. 遙問主翁何處去, 壁淵齋上月猶焚.”

34) 朴致馥, 『晚醒先生文集』 권2, 「登碧寒亭 次板上韻」, “江樓秋氣倍澄清, 欄下波光靜不驚. 千

을 소재로 시를 썼으니, 무민당이 남긴 교훈은 과연 많은 이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조들의 뜻을 기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학산의 태도는 지인을 떠나보내는 작별의 순간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

4) 송별시에 나타난 작별의 아쉬움

일반적으로 송별시는 대부분 슬프고 침울하며, 과하게 고요하거나 격앙되는 분위기로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학산의 송별시를 살펴보면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슬픈 분위기가 느껴지면서도 학산 특유의 낙관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그리고 당시 자신의 상황을 송별시에 투영시켜 다양한 감정을 토로하면서도 다양한 자연 풍경을 묘사하여 송별시의 내용 또한 잘 보여준다. 주변 환경을 묘사하는 것은 종종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가 표출하는 감정이 연결되어 작품의 내용을 극대화하고 감정을 심화시킨다. 대표적으로 아래 김서구(金瑞九)를 전송하는 학산의 시에서는 그의 감정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마음으로 가혹한 시련의 시기를 견디자고 기약하며
 松柏心期托歲寒
 이별의 구름은 아득해지고 나무들은 둥글게 우거졌구나. 離雲漠漠樹團々
 산속에 들어가는 것은 진나라의 난리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나
 入山不是秦家避
 세상에 다시 발을 내딛자니 험난한 세상살이 꺼려지겠지. 出脚應嫌蜀道難
 정자 가에 말을 세워두고 물과 돌을 보며 슬퍼하네. 立馬亭邊懷水石
 다리 위에서 시를 건네니 배웅하는 선비들이 떼를 지어 모였구나.
 贈詩橋上簇衣冠
 그리운 마음 전하고자 저 먼 오주의 달 뜨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相思休待吳州月

古頂針帽上句, 心香一瓣拜先生.”

35) 李承熙, 『大溪先生文集』 권2, 「碧寒亭次板上韻」. “北風悲寒雪, 南瀝理漁船. 尚有秋江月, 精光似昔年.”

물고기나 기러기가 오갈 때 자주 안부를 전해주고.

魚鴈來時數報安

<김생을 전송하며(送金生)>

학산은 평소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좋아했던 만큼, 벗을 떠나보낼 때는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고 그가 떠나는 길을 걱정했다. 학산은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서신을 보내 자신의 그리운 마음을 숨김없이 전달했다.³⁶⁾ 위 시에서 학산의 쓸쓸한 마음이 드러나는데 자연 풍경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풍경을 바라보며 벗을 떠나보내는 그리운 마음을 시로 풀어냈다. 김생이 산속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닌 복잡한 세상에 나가는 일이 쉽지 않아 선택한 길임을 이해해 주었다. 어쩌면 학산 자신이 산속에서 오랜 기간 은거했고, 고달픈 면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를 더욱 걱정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 행에서는 학산이 벗에게 서로 자주 소통하자고 하였는데, 늘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은거 생활이 고독했던 만큼 항상 친구를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전형적인 송별시로 비추어질 수 있는 시들도 학산의 삶을 이해하고 보면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소통하고 남을 배려했는지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등장하는 자연물을 또한 풍경을 그리는 데만 머물지 않고 학산의 굳은 마음과 상대에 대한 배려를 드러내기도 한다.

저 멀리 단산을 바라보니 푸른 빛이 감돌고

丹山遙望望中青

그대 떠나는 길은 서북 하늘처럼 멀기만 하네.

西北天長是去程

피꼬리는 자꾸만 나를 다정하게 부르는데

黃鳥多情頻有喚

흰 구름은 하염없이 떠나만 가네.

白雲何意去無停

이별한 뒤 깊어가는 밤에 오주에서는 홀로 달을 보며 서로를 그리워하고

吳州後夜相思月

이제는 낙사에 함께 모여 별을 바라보네.

洛社今時共聚星

그대 떠나는 길에 온 고을의 선비들 나와 배웅하는데

出祖衣冠傾數郡

36) 李縝雨, 『學山遺稿』 권2, 「答李英振」. “奉別已有月時, 不禁耿耿馳仰. 承領惠書, 敬審尊候起止康福, 胤舍俱平穩. 隣居諸友日事微逐, 時有詩樽相屬之勝. 仰想風韻, 不覺此身之欲飛動.”

푸른 안개와 향기로운 풀들이 끝없는 정자(亭子) 길로 이어져 있네.

綠烟芳草短長亭

<김서구(영시)를 떠나보내며(送別金瑞九永蓍)> 제1수

김서구는 학산과 유독 각별했던 사이로, 학산이 50세 때 둘째 아들 이병무(李秉武)를 잃자, 편지를 보내 학산을 위로해 주었다.³⁷⁾ 김서구는 서신을 보낼 때 단지 형식적인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학산에게 진심으로 힘이 되어주고자 하였고, 학산 또한 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³⁸⁾ 이후 그는 학산을 직접 방문하기까지 하였으니 위 시에서 김서구를 떠나보낼 때 학산은 유독 그리움이 크고 미련이 남아 보인다. 학산은 자신의 마음을 자연에 투영시켜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데, 마지막 구절에서는 김서구가 홀룡한 인물임을 강조하여 표현하는데 존경심마저 담겨있는 듯하다. 푸른 안개와 향기로운 풀들이 길가에 늘어선 정자들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장면도 김서구가 떠나는 길이 평안하고 아름답기를 바라는 학산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처럼 주변 지인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깊은 감정을 나누던 학산의 시선은 점점 개인의 삶을 넘어 나라와 공동체의 운명으로 넓혀져 갔다.

학산이 활동한 시기는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이 상실되고 국가 내의 질서가 무너져 갔던 혼란의 시기였다. 모두가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이를 표현하고 행동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학산은 시를 지어 본인의 마음을 표출했는데, 여기서 유학자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학산은 산속에 오래 은거하며 학문을 닦고 문인들과 교류하며 후손들 또한 우수한 학도로 기르곤 했는데, 그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전통이 계승되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것 또한 괘시할 수 없는 문제였기에 그의 시에는 이러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

37) 李績雨, 『學山遺稿』 권2, 「答金瑞九永蓍」, “謂績有哭子之悲 專人垂書 悼死問生 眷念周至 哀感無任”

38) 李績雨, 『學山遺稿』 권2, 「答金瑞九永蓍」, “金見來書 眷眷辭旨 非惟出於問慰之至意 兼欲詳聞邇來賤狀 故不敢有隱也”

나고 있다.

<登高> 시 한 편을 읊으니 슬픈 감회가 새로워지고

一賦<登亭>感慨新

결국 세상살이란 알 수 없는 미로와 같구나.

終知世路是迷津

풍악 소리 떠들썩한 곳엔 푸른 옷깃의 젊은 학도들로 가득한데

喧填歌管青衿子

소탈하게 풍류나 즐기던 이는 백발의 이 늙은이뿐이구나.

疎散風流白髮人

안개가 자욱한 물결이 마치 드넓은 바다와 같고

渺渺烟波千頃海

곳곳마다 꽃이 피어 사시사철 봄과 같네.

間間花木四時春

그대와 나 모두 저갓거리에 숨어 사는 은자(隱者)들이니

與君俱是隱城市

심사가 어찌 옛날 진나라 피했던 것과 같으랴.

心事何如昔避秦

<추산사에서 이매려, 허참봉과 함께 읊음(鰲山社與李梅旅許參奉壕共賦)> 제2수

위 시는 학산이 말년에 창작한 시로, 매려(梅旅) 이태상(李泰翔)과 허참봉(許參奉) 허훈(許薰)과 함께 읊은 것이다. 이태상은 학산과 관계가 친밀했던 유학자로 학산은 그를 존경하고 의지하고자 했고 이태상 또한, 그를 지지해 주었다. 그들은 서로 교류가 잦아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터놓을 정도로 가까워졌고,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여 우정이 더욱 깊어졌다.³⁹⁾ 허훈은 성리학과 실학을 계승한 문인이기에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으니 마음이 통할 수밖에 없었다.⁴⁰⁾ 그들은 늘 학문에 몰두하고 시를 짓고 자연을 감상하며 즐겁게 시간을

39) 李續雨, 『學山遺稿』 권2, 「祭李梅旅文」, “我不嗜酒, 爲設蜜缸, 逢別之際, 欣悵無雙, 何幸年來, 卜隣萍鄉, 契好益篤, 傾心倒腸, 凡公云爲, 作我楫幹, 不我愚慙, 同歸闌漫, 日事徵逐, 有若虹蜺, 春風吹援, 萬花齊發, 孤雲臺上, 觀海亭中, 搜幽濟勝, 相酬詩筒, 縱文酒會, 無補心身, 暮年風味, 亦覺津々, 此樂未央”

40) 許薰, 『舫山先生文集』跋, 「舫山先生文集跋」, “先生之學, 祖述乎朱子, 李子, 模範乎眉翁, 星翁, 嫡承乎性齋許先生之門, 以彝倫爲根本, 以誠敬爲宗旨, 尊王道而黜霸術, 斥諛辭而扶正脉, 發以爲文章, 始雄奇而終醇正, 或彪灑而兼簡潔, 凡禮樂刑政, 忠孝義烈, 庠序學校, 壇壝社廟, 山川岳瀆.”

정한 벗들과 직접 마주하여 기쁨을 나누면서도, 한편으로는 고향소식을 전해 줄 편지마저 오지 않는 단절된 현실에 쓸쓸함을 느꼈을 것이다. 동시에 나이가 들수록 서로 몸도 예전 같지 않아 만남이 뜸해지니 이 또한 슬픔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학산은 마음이 허무해질수록 후회와 더불어 자기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노년기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모습을 보인다.⁴²⁾ 마지막 행을 보아도 자신을 자책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이 시에서는 나이가 들며 변해가는 학산의 풍경에 대한 시각과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룬 것이 없는 허무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학산의 한시는 기존 한시 작가들이 보여주던 전형적인 틀에 충실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그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당시 문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을 따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수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의 감회나 정서를 표현하고자 했던 점은, 학산의 성격적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유학자 학산(學山) 이적우(李績雨)의 생애와 교유, 그의 한시에 대해 고찰하며, 근현대 시기 한국의 학문 체계를 계승한 지식인들의 삶에 대해 고찰하였다. 학산은 어릴 적부터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했고 학문적으로 재능이 뛰어나 항상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다. 그는 학문 외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거의 일평생을 산속에 은거하며 살았다.

壽, 而第念今時之士, 或有以此爲非古而不爲者. 好古君子 非古不爲 固宜矣, 而亦恐有未然者. 程夫子之言曰: “事之無害於義者, 從俗可也.” 今因人子之請 以壽其親, 恐無害於義”

42) 李績雨, 『學山遺稿』 권2, 「與李英振泰翔」. “績雨年益邁, 而志業益荒廢已分 作庸下人, 而子若孫之悠泛度日, 亦爲憎悶.”

행장의 내용에 따르면, 그의 지식과 성품, 행실은 후대에 기록될 만큼 뛰어났지만, 그는 스스로 명성을 떨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때때로 벗들과 문학적인 교류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외적인 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것은 학산의 인물적 특징이기도 했지만, 당대 유학자들이 지향하던 학자적 태도, 삶의 방식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학산은 하검진, 조공섭, 김황 등 문인들과 우정이 깊었고 그의 주변인들은 학산이 모든 방면에 우수하다고 언급하였다. 학산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을 보면 비록 그가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지만, 후대가 조명할 만한 우수한 유학자 중 하나였음을 추측할 수 있으나, 이를 검증할 만한 충분한 사료가 존재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학산의 문집으로는 그의 큰아들 이병호가 편찬한 『學山遺稿』가 있는데, 총 3권 1책으로, 권1에는 시 99수, 권2에는 서(書) 18편, 기(記) 1편, 제문(祭文) 9편, 행록(行錄) 4편, 권3은 부록으로 행장(行狀), 묘지(墓誌), 묘갈(墓碣), 식사당기(式似堂記), 식사당상량문(式似堂上樑文), 식사당명(式似堂銘), 발(跋)이 수록되어 있다. 간행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서(序)가 1954년에 작성되고, 발(跋)이 1956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1950년대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살펴본 다양한 시의 내용들은 굴곡이 심했던 학산의 인생을 보여 주며, 학산이 느꼈던 내면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 먼저, 일생을 산속에서 보내다시피 했던 학산의 산수시는 섬세하고도 생동감 있는 묘사로 독자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사유를 탐문하게 만든다. 산수시는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는 시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모든 구절에 시인의 감정과 생각이 스며들어 있다. 시인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화려하게 표현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감정 표현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 학산의 산수시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적절히 어우러져,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도 자연을 생생히 그려내었다.

학산의 교유시는 우정에 대한 소중함, 벗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감정은 그가 가족과 친한 벗을 첫 번째로 여기고 가장 소중히 대했던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정이 많은 성품을 시 속에 드러

낸 것은 시인으로서 본질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산은 늘 모든 이들에게 진실로 대하는 한편, 섬세하고 풍부한 감성을 지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시의 내용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그와 교류하는 인물들을 소중히 여기고 조심히 대하는 그의 성품은 교유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학산의 회고시는 그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명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회고시에서는 학산이 선조와 관련된 곳을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서 선조들을 회상하며 창작한 시가 주를 이룬다. 비록 내용은 제한적이지만 그의 섬세한 묘사로 인해 마치 그 주변 경관이 보이는 듯하다. 학산은 불안정한 시기를 살아간 인물이지만 그 안에서도 유학적인 면모가 두드러진다. 일반적인 회고시처럼 단지 자신의 추억만 회상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학산의 회고시는 대부분이 선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시의 주제는 자신이 방문한 장소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대부분 시의 제목이 장소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다. 학산이 지은 회고시는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듯한 내용으로 한국의 문학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학산의 송별시를 살펴보면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슬픈 분위기가 느껴지면서도 학산 특유의 낙관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그리고 당시 자신의 상황을 송별시에 투영시켜 다양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주변 환경을 묘사하는 것은 종종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가 표출하는 감정이 연결되어 작품의 내용을 극대화하고 감정을 심화시킨다. 때문에, 학산의 송별시에서도 감정이 풍부하게 묘사되어 작품 내용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산이 활동한 시기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던 시기와 맞물려 있기에, 국가 정세가 혼란스러웠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당대를 살아가던 지식인들은 국가 정세를 비판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 방식은 서로 상이한 측면이 있었는데, 학산은 시를 지어 본인의 마음을 표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산의 유학자적 면모를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동시에 학산은 세속을 떠나 산속에 오래 은거하며 학문을 닦고, 문인들과 교류하며 후손들을 학

문 후속 세대로 양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며 저항하는 인물들이 한국의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학산은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로써 학산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전통이 계승되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것 또한 팔시할 수 없는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학산의 문집을 재분류하고 그 특성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유학자의 학문적 세계를 구축하는 방식에 대해 탐문하고 그 가치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학산 이적우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학자였기에, 그의 생애와 작품을 연구하는 것은 같은 시대 문인들과의 교류, 학산의 한시 창작 특징 등을 탐색하고 밝히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본고는 그의 문집 『학산유고』에 수록된 한시에 대해 상세히 탐구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여 전통 계승에 대한 인식, 유학자로서의 면모 등 다양한 방면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이 논문은 학산이 창작한 한시의 예술적 특징에 관해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후속 작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李績雨, 『學山遺稿』.
曹兢燮, 『巖棲集』.
張福樞, 『四末軒集』.
李震相, 『寒洲先生文集』.
許愈, 『后山先生文集』.
閔在南, 『晦亭集』.
朴致馥, 『晚醒先生文集』.
李承熙, 『大溪先生文集』.
許薰, 『舫山先生文集』.
許傳, 『性齋先生文集』.
柳正源, 『三山先生文集』.
柳道源, 『蘆厓集』.

금장태, 『선비의 가슴 속에 품은 하늘』, 2012, 114~117쪽.
안진오·오종일·최대우 외, 『호남의 유학자들』, 2016, 495~496쪽.
한영규, 『창강 김택영 평전-중국과 한문을 택한 마지막 문인』, 2024, 105쪽.
정기인, 『한국 근대시의 형성과 한문맥의 재구성』, 2020, 40쪽.
허균, 『한국의 누와 정: 선비, 마음을 다스리다』, 2009, 6쪽.
구산우·이정수·장성진·최정용, 『경남의 서원』, 2008, 124~125쪽.

사재명; 남명연원 사숙 인물고(남명학연구원) <http://www.nammyung.org/>

| Abstract |

The Life and Poetry of Haksan Lee Jeok-u

Noh, Yeon-song

Sunchon National Univ. Lectu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terary career of Haksan (學山) Lee Jeok-u—a man of letters and Confucian schola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by looking at his life and the classical Chinese poetry he left behind. As a Confucian scholar, Haksan was committed to upholding tradition and preserving indigenous culture, reflecting a typical response among intellectuals who lived in rural seclusion at the time. Indeed, an examination of his life reveals that he not only devoted himself to scholarship but also actively engaged with other prominent literary figures of the era. Consequently, while Haksan achieved a certain level of scholarly success, he received relatively less recognition compared to literary figures who actively incorpor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ra into their works. Nevertheless, a deep understanding of literary activit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requires examining not only political struggles but also the lives of rural intellectuals who upheld tradition and forged scholarly bonds. Dedicating oneself to literature was a practice centered on preserving Korea's scholarly system and carrying on its literary traditions—a commitment clearly evident in Haksan's own life. In this context, Haksan Lee Jeok-u can be considered one of the key scholars who upheld the domestic

scholarly tradi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onsequently, I selected Haksan Lee Jeok-u as the subject of my research and set out to trace his scholarly journey.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examines materials such as literary works and biographical accounts contained in 『Haksan Yugo』 (Collected Works of Haksan) to explore Haksan's scholarly orientation and the nature of his intellectual solidarity with fellow literati. Haksan Lee Jeok-u maintained close ties with prominent literary figures of his time—such as Ha Gyeom-jin, Jo Geung-seop, and Kim Hwang—demonstrating that he was not merely an isolated recluse but a Confucian scholar dedicated to upholding traditional values. However, as his collected works do not explicitly record the dates of composition, reconstructing a strict chronological timeline presents limitations. Consequently, this study adopts a thematic classification as its primary analytical framework while seek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works' significance by contextualizing them within the details of Haksan's life and his relationships with contemporaries. This analytical approach moves beyond the surface meanings found in Haksan's classical Chinese poetry to reveal the temptations of the secular world he experienced, his wariness toward them, his resolve to practice Neo-Confucian teachings, and the steadfast integrity and fidelity he upheld as an orthodox Confucian scholar. Consequently,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shedding light on the life of a Confucian scholar living in seclus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reby expanding the scope of research into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and re-examines the inner struggles faced by intellectuals of that era.

Key Words : Haksan, Lee Jeok-u, Haksan Yugo, Japanese colonial period, Chinese poetry.